

3·1운동 100년 그날을 기억한다



안국역



천주교 중앙대교당



승동교회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은 봉건 체제를 민주공화정으로 왕도를 국도로, 백성을 국민으로 탄생시킨 역사적 혁명이다. 100년이 흐른 지금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그날의 함성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현장들이 많이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국역은 3·1운동의 중심지 북촌과 인사동 등을 잇는 거점이다. 인근에 여운형·손병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집터가 있다.

이를 기념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안국역을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꾸몄다. 안국역 4번 입구에 설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대문을 표현한 '100년 하늘 문'을 비롯해 다양한 조형물과 기념물을 조성했다. 대표적인 것이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100초 동안 만날 수 있는 그래픽 '100년 기둥'이다.

불꽃처럼 살다 간 독립운동가들이 올해 '100년 기둥'에서 다시 만난 셈이다. 100년 기둥에는 독립운동가 800여명의 사진을 담았다. 한 명 한 명에게서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열원을 느낄 수 있다.

지하 4층 승강장에는 안전문과 대기 의자에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어록을 기록해 놓았다. 김구,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이봉창 등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차량 칸마다

다른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다. 대기 의자인 '100년 걸상'은 여덟 가지 주제로 나눠 무명의 독립운동가 이름을 새겨놓았다. 3·1운동과 민족사의 흐름을 강물로 구성한 영상과 그래픽 '100년 강물', 우리 헌법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100년 헌법'이 마련돼 있다.

3·1운동 배후에는 종교계의 지원도 있었다. 인사동 삼일대로에

사에서 인쇄한 독립선언문은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보관했다가 3·1운동 당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인사동 거리로 접어드는 초입에 100년 넘은 오래된 예배당 승동교회가 있다. 1912년 지은 승동교회는 3·1운동의 주축인 학생단의 모임 장소였다. 학생 모임을 주도한 것은 승동교회에 다니던 김원벽이다.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 역사로 변신 천도교 중앙대교당, 3·1운동 중추 승동교회, 주역인 학생들의 아지트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도 그 중요한 곳이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3·1운동 역사의 현장이자 독립운동의 한 부분이다. 당시 천도교는 '척왜(斥倭)'를 외치던 동화의 후신이다. 독립운동에도 매우 열성적이었고 3·1운동 중심에 서 있었다.

천도교 제3대 교조 손병희 선생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1918년 중앙대교당 설립이라는 명목 아래 성금을 걸었다. 이 중 일부를 중앙대교당 건축에 쓰고 나머지는 3·1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독립군 운동 자금으로 보내기도 했다. 보성

그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교회 소학교 사무실에서 학생회 모임을 열었다. 학생들은 승동교회에서 3·1운동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논의했다.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3·1운동으로 김원벽을 비롯한 많은 교인이 투옥되자 당시 승동교회 차장인 목사도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12인의 장서'를 과감히 조선총독부에 제출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 후 승동교회는 일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난을 겪어야 했다. 1988년 3·1독립운동 유적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교회

마다 한편에 3·1독립운동기념 터포지석을 세웠다.

종로 탑골공원은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장소다. 민족대표와 학생 대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탑골공원에서 만나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유혈 사태를 우려한 민족대표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채 탑골공원에 모여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탑골공원 내 팔각정에서 오후 2시30분께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군중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눠줬다.

학생들은 서울에서만 아니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아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탑골공원에는 3·1운동 벽화, 손병희 선생의 동상 등이 있다.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으로 불리는 탑골공원은 독립운동 성지로서 격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2002년 삼일절에 성역화 작업을 거쳐 재개장했다.

보신각도 빼놓을 수 없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을 외친 군중은 보신각에서 일제에 항의하는 표시로 보신각종을 울렸다. 이후 보신각은 3·1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이 됐다. 학생단 주도로 제2차 대규모 시위가 열린 3월1일 남대문역 광장에서 여러 갈래로 나뉜 시위대는 낮 12시에 이곳에 모여 독립 연설회를 개최했다. 이후 4월23일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국민대회도 이곳에서 열렸다.

1919년 당시 이화여고 학생이던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유관순교실과 유관순기념관도 있다. 이화박물관 안에 있는 유관순교실은 당시의 교실 모습을 재현했다. 유관순 열사와 이화여고 학생의 모습이 영상으로 상영된다.

뉴스스



서울 법인택시 254개사 근로·급여 확인

지자체 최초 온라인 공개 의무화·브로커 의존 방식 개선

서울시가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 기준급,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인다. 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과 사업일부정지는 1차 120만원·20일, 2차 240만원·40일, 3차 360만원·60일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급(오전·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 교실 공기 질 개선 사업 확대

수목 가지치기·교실 냉난방기 세척 사업 등 예산 늘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 등 학교 시설보수 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설지원을 받았던 89개교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수렴한 결과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수목 가지치기가 꼽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학교 수목가지치기 지원사업에 306개교 대상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미세먼지 등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교실 실내공기 질을 개선

하고자 교실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사업도 지난해 17억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 기동점검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802개교에서 3206건의 시설지원을 했다.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에 발맞춰 안전·정령·현장중심 시설지원을 목표로 학교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수원시, 3·1운동 상징물 건립비 할당 강제모금 '말짱'

경기 수원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 상징물을 건립한다며 각 구청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모금액을 할당하듯 강제 모금을 말짱이다.

단체원들은 관이 나서서 모금 목표액을 할당해 기부금을 강제 모금하는 건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4일 수원시와 4개 구청 등에 따

르면 3·1운동 100주년 상징물 건립비 모금 범시민참여 캠페인이 3월부터 8월15일까지 진행된다.

기념비는 3월 현상공모를 거쳐 4월 디자인 확정 후 수원시청 앞 88울림파크공원에서 착공한 뒤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추진주체는 수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모금처는 수원문화재단으로

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5억원을 걷기로 했다.

하지만 모금 목표액은 구청 2500만원, 각 동별 120~150만원씩 할당됐다. 각 구청과 각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한 단체원은 "등에서 축구를 할당하더니 이번엔 3·1운동 기념비를 만든다며 강제 모금하고 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